

항공운송 동향분석

'10년 11월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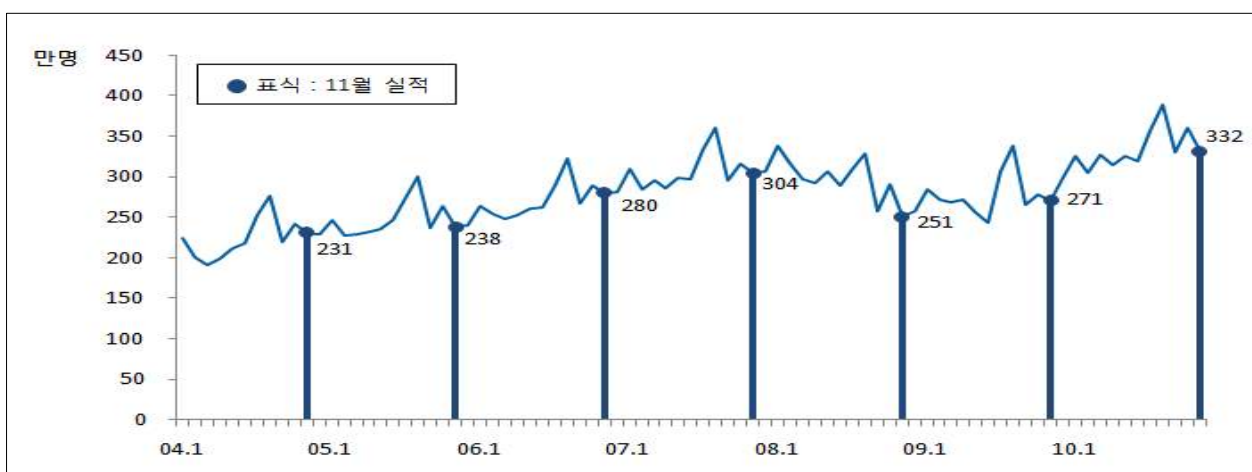
'10년 11월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 ❖ 중국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중국 여행객 증가, 환율하락으로 인한 단거리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국내 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22.4%, 10.3% 증가, IT 및 차량 부품 등의 수출둔화 등으로 항공화물이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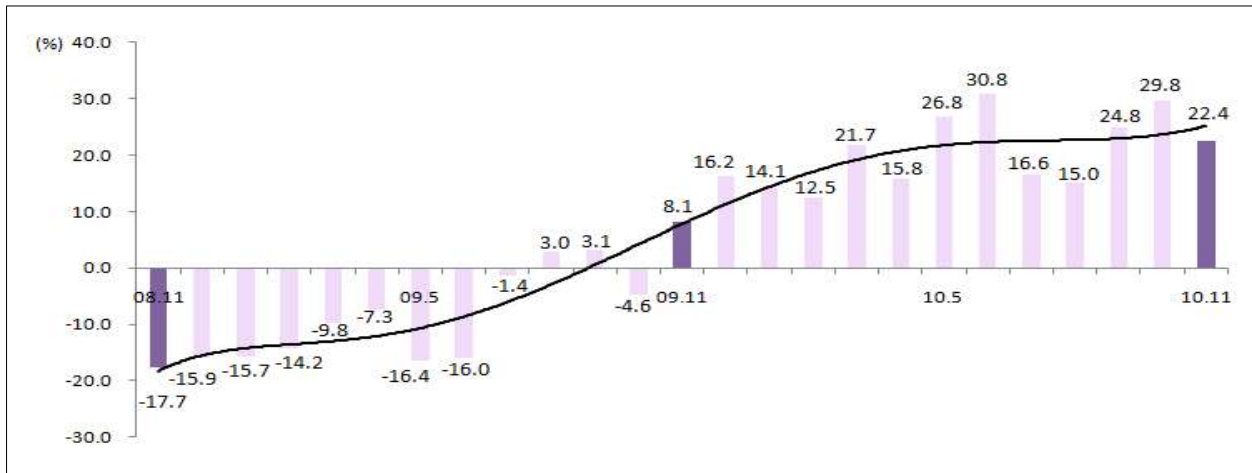
국제여객

11월 국제여객은 중국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중국 여행객 증가, 환율하락 등으로 인한 내국인 단거리 여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22.4% 증가한 3,315,031명을 달성하였다. 이는 2007년 11월 대비 8.9% 증가한 실적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었다.

특히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포격으로 인하여 긴장감이 고도됨에 따라 항공업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졌으나, 일시적으로 여객실적이 약 3~4% 줄어들었을 뿐 바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국제여객 실적추이



〈그림 2〉 국제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아래 <표1>은 공항별 국제여객실적을 정리한 표로, 전국 공항의 국제여객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평균 22.4% 상승하였다. 김포공항은 하네다, 오사카 노선증편 및 나고야 노선신설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운항이 27.8% 증가, 여객실적이 25.2% 증가하였고, 그 외에 김해·대구·청주·양양공항도 노선 신·증편 및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 등의 영향으로 국제여객이 대폭 증가하였다.

〈표 1〉 공항별 국제 여객실적

(단위 : 명)

| 공 항 | 인 천 | 김 포 | 김 해 | 제 주 | 대 구 | 청 주 | 무 안 | 양 양 |
|----------|-----------|---------|---------|--------|--------|--------|-----|--------|
| '09년 11월 | 2,240,558 | 224,905 | 185,288 | 52,159 | 2,471 | 1,875 | | 881 |
| '10년 11월 | 2,678,711 | 281,693 | 273,850 | 52,725 | 7,825 | 16,437 | 292 | 3,498 |
| 전년대비 | 19.6% | 25.2% | 47.8% | 1.1% | 216.7% | 776.6% | | 297.0% |

다음의 <표 2>은 인천공항의 노선별 여객실적을 나타내어 준 것으로, 유럽·대양주를 제외한 노선이 증가세를 지속하여 전년 동기대비 평균 19.6%의 증가세를 보여 전월에 비해 다소 감소한 실적(-5.2%)을 보였다. 특히 지난 10월 중국 국경

절 연휴 등으로 인해 급증하였던 중국노선은 전월에 비해 -10.2% 감소하였지만,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8.8%의 증가세를 보였다. 동남아노선의 경우 전월대비 7.3% 증가, 전년대비 33.7% 증가하여 노선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환율하락, 단거리 여행수요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계스케줄이 적용됨에 따라 운항이 감편된 유럽노선은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실적이 대폭 감소하여 전월대비 -20.8% 감소,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하였다.

〈표 2〉 인천공항 노선별 여객실적

(단위 : 명)

| 노 선 | 일본 | 중국 | 동남아 | 미주 | 유럽 | 대양주 | 기타 |
|----------|---------|---------|---------|---------|---------|--------|---------|
| '09년 11월 | 524,902 | 577,089 | 539,895 | 293,956 | 147,573 | 64,248 | 92,895 |
| '10년 11월 | 547,051 | 743,066 | 721,755 | 344,867 | 143,999 | 60,976 | 116,997 |
| 전년대비 | 4.2% | 28.8% | 33.7% | 17.3% | -2.4% | -5.1% | 25.9% |
| 전월대비 | -5.7% | -10.2% | 7.3% | -7.6% | -20.8% | 7.0% | -1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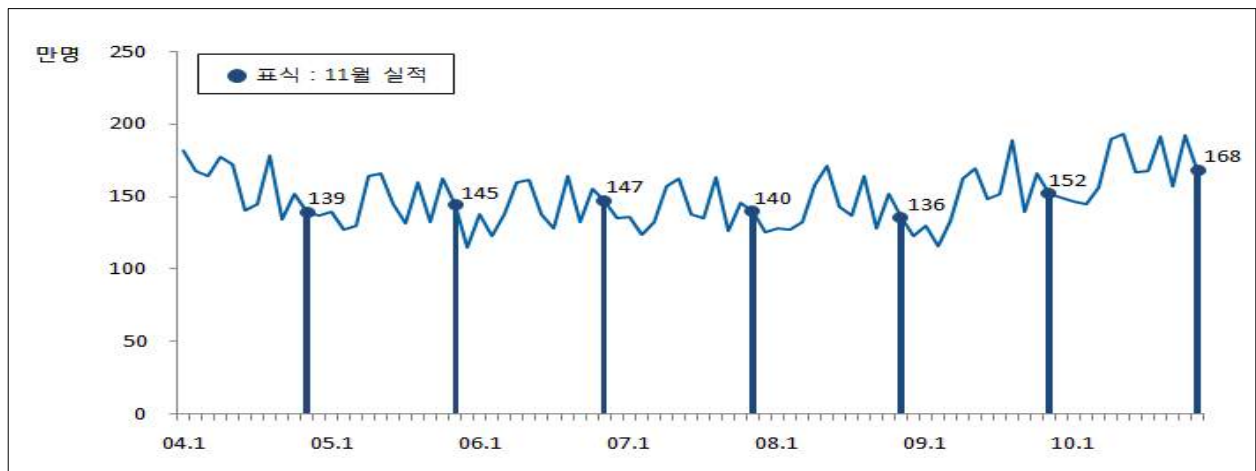
인천공항의 환승여객¹⁾은 미주·동남아노선의 환승객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직항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월대비 -7.0% 감소, 전년 동기대비 -6.8% 감소하였다. 환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4.5%p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0.1%p 증가한 15.6%를 기록하였다.

1) 환승여객 월별추이 : 44만명('10.9) → 45만명('10.10) → 42만명('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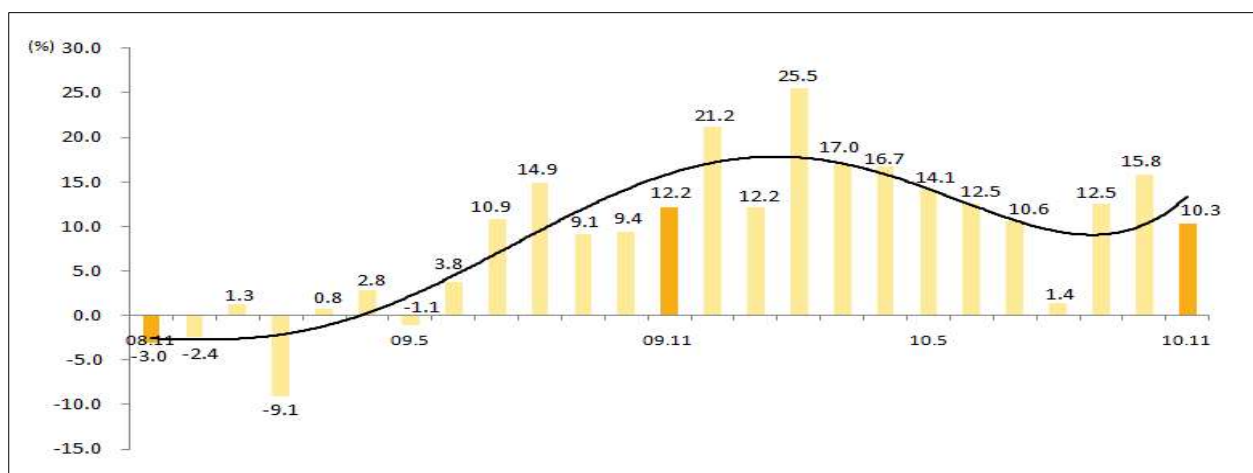
환승률 월별추이 : 16.1%('10.9) → 15.5%('10.10) → 15.6%('10.11)

국내여객

11월 국내선 여객실적은 지방공항의 운항 감소(-2.7%)로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한 총 1,677,407명을 달성하였다. 11월 국내여객 실적추이 그래프를 <그림 3>과 같이 살펴보면 경제위기가 심화된 2008년 136만명으로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2010년 11월 실적은 2008년 동기대비 23.7% 증가, 2009년 동기대비 10.3% 증가하였다.



<그림 3> 국내여객 실적추이



<그림 4> 국내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KTX 2단계 개통식 모습, 부산역]

11월 국내여객의 이슈사항으로는 KTX 2단계 개통이 국내항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전반적으로 공항별 국내여객실적을 비교하고자 11월 국내선 운항 및 여객현황자료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공항별 국내선 현황

| | 운 항 | | | 여 객 | | |
|----|----------|----------|--------|----------|----------|--------|
| | '09년 11월 | '10년 11월 | 전년대비 | '09년 11월 | '10년 11월 | 전년대비 |
| 김포 | 4,265 | 4,280 | 0.4% | 524,412 | 582,055 | 11.0% |
| 김해 | 1,759 | 1,583 | -10.0% | 193,792 | 207,863 | 7.3% |
| 제주 | 4,142 | 4,181 | 0.9% | 546,324 | 638,590 | 16.9% |
| 대구 | 300 | 300 | 0.0% | 37,666 | 43,436 | 15.3% |
| 광주 | 447 | 435 | -2.7% | 57,541 | 55,916 | -2.8% |
| 청주 | 381 | 304 | -20.2% | 42,436 | 47,551 | 12.1% |
| 울산 | 380 | 342 | -10.0% | 44,543 | 29,202 | -34.4% |
| 여수 | 233 | 218 | -6.4% | 26,807 | 28,055 | 4.7% |
| 무안 | 25 | 8 | -68.0% | 607 | 580 | -4.4% |
| 사천 | 98 | 71 | -27.6% | 6,883 | 5,844 | -15.1% |
| 포항 | 146 | 124 | -15.1% | 12,790 | 11,093 | -13.3% |
| 군산 | 59 | 59 | 0.0% | 7,107 | 6,742 | -5.1% |
| 원주 | 30 | 29 | -3.3% | 2,592 | 2,995 | 15.5% |

운항현황에 따라 운항의 증감 변화가 거의 없는 공항과 운항이 감소한 공항으로 나누어 국내여객실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항의 증감변화가 거의 없는 공항으로는 김포·제주·대구·군산공항을 들 수 있으며, 군산공항을 제외한 세 개 공항의 국내여객실적은 전년대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운항이 감소한 공항으로는 네 개 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을 들 수 있으며, 운항 감소와 함께 여객실적 또한 대부분의 공항에서 감소하였다. 하지만 김해·청주공항의 경우 운항이 -10% 이상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실적이 각각 7.3%, 12.1% 증가하여 눈에 띄는 실적을 보였다.

KTX 2단계 개통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해·울산·포항공항을 살펴보면 김해공항의 경우 운항이 -1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실적은 7.3% 증가한 반면 울산·포항공항은 운항이 각각 -10%, -15.1% 감소하여 여객실적이 -34.4%, -13.3% 감소하였다. 이는 김해공항의 경우 에어부산이 11월에 이어 12월까지 김포-김해노선의 운임을 전편 20% 할인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KTX와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에 따라 영향을 미미하게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KTX 2단계 개통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세 개 노선(김포-김해, 김포-울산, 김포-포항)의 운항, 여객실적, 탑승률 현황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김포-김해노선의 경우 운항이 -5.7%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실적은 1.7% 증가하였고 탑승률 또한 전년대비 4.4%p 증가한 반면 김포-울산노선의 경우 운항이 -10.1% 감소하여 여객실적이 전년대비 -34.2% 감소하였고, 탑승률도 -18.3%p 떨어져 수요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KTX의 노선이 다양화될 예정이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운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비용 및 수익측면에서 새로운 운영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세부노선별 국내선 현황

| | 운 항 | | | 여 객 | | | 탑승률 | | |
|-------|-------------|-------------|--------|-------------|-------------|--------|-------------|-------------|-------|
| | '09년 11월 | '10년 11월 | 증감률 | '09년 11월 | '10년 11월 | 증감률 | '09년 11월 | '10년 11월 | 증감 |
| 김포-김해 | 1,737 | 1,638 | -5.7% | 200,641 | 204,095 | 1.7% | 70.7 | 75.1 | 4.4 |
| 김포-울산 | 742 | 667 | -10.1% | 85,635 | 56,361 | -34.2% | 71.4 | 53.1 | -18.3 |
| 김포-포항 | 272 | 226 | -16.9% | 22,712 | 20,124 | -11.4% | 51.7 | 55.1 | 3.5 |

〈표 6〉 세부노선별 운임 비교

| | 김 해 | | 울 산 | | 포 항 | |
|--------|--------------------|--------------------|---------|---------|---------|---------|
| | 평일(월~목) | 주말(금~일) | 평일(월~목) | 주말(금~일) | 평일(월~목) | 주말(금~일) |
| 대한항공 | 62,400 | 71,900 | 62,400 | 70,900 | 58,400 | 67,400 |
| 아시아나항공 | 55,200 | 67,400 | 61,900 | 70,900 | 58,600 | 67,900 |
| 에어부산 | 52,400 (41,920) | 64,000 (51,200) | | | | |
| KTX | 51,800 | 55,500 | 46,300 | 49,500 | 42,600 | 45,600 |

* 괄호 안은 할인 운임가격, 포항의 경우 KTX는 신경주역 기준임

〈표 7〉 제주 및 내륙노선의 국내여객실적

| | '09년 11월 | '10년 11월 | 전년대비 |
|------|----------------------|----------------------|-------|
| 제주노선 | 1,069,015 (71.5%) | 1,257,974 (78.0%) | 17.7% |
| 내륙노선 | 451,692 (65.7%) | 419,433 (67.4%) | -7.1% |

* 괄호 안은 탑승률 수치임

국내여객실적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위 <표 7>과 같다. 2010년 11월은 제주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주노선 여객실적이 전년 대비 17.7% 증가한 반면 내륙노선은 -7.1% 감소하였다. 탑승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상승된 점을 알 수 있고, 내륙노선에 비해 제주노선의 탑승률이 더욱 상승한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선의 저비용항공사 분담률은 36.5%로 전년보다 4.7%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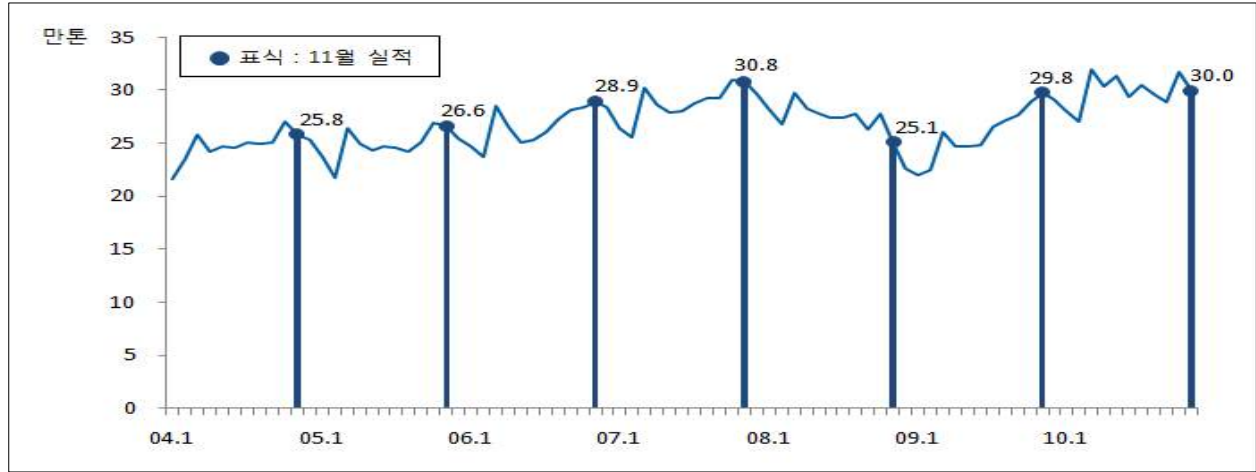
항공화물

경기침체 이후 지난 5월까지 급반등 추세를 보인 항공화물 수요 성장세는 9월까지 둔화되다가 10월 다시 상승하였으나 11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한 299,676톤을 달성하였다. 이는 2007년 11월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주요 매출원인인 반도체의 수요가 둔화되고 환율하락 등으로 미주 등의 수출기업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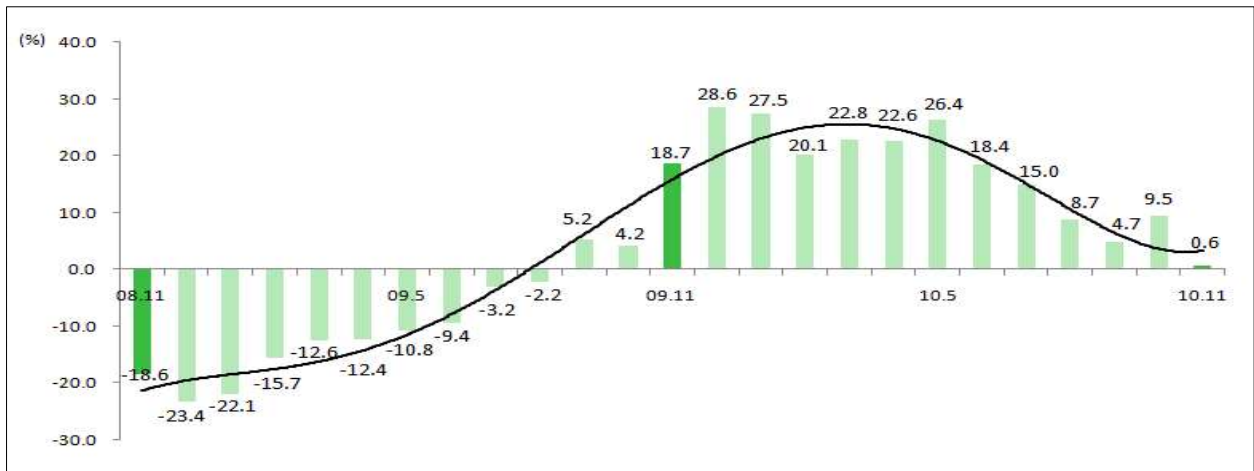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국제화물은 2007년 동기대비 -0.9% 감소,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 전월대비 -5.0% 감소한 279,003톤을 달성하였고, 국내화물은 전년 동기대비 -14.8% 감소, 전월대비 -11.4% 감소한 20,672톤을 달성하였다.

<표 6>은 인천공항의 노선별 화물실적을 나타내어준 표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미주·대양주노선이 전년대비 각각 -4.2%, -5.3% 감소함에 따라 평균 1.4% 증가에 그쳤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노선은 약 10%의 증가세를 보여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일본·중국노선은 각각 0.9%, 0.8% 증가함으로써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99,324톤으로 전월대비 -1.6% 감소,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하였다.



〈그림 5〉 항공화물 실적추이



〈그림 6〉 항공화물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표 6〉 인천공항 노선별 화물 실적

(단위 : 톤)

| 노 선 | 일본 | 중국 | 동남아 | 미주 | 유럽 | 대양주 | 기타 |
|----------|--------|--------|--------|--------|--------|-------|--------|
| '09년 11월 | 32,771 | 69,973 | 41,873 | 60,697 | 46,688 | 3,647 | 9,188 |
| '10년 11월 | 33,070 | 70,561 | 45,905 | 58,161 | 46,525 | 3,454 | 10,852 |
| 전년대비 | 0.9% | 0.8% | 9.6% | -4.2% | -0.3% | -5.3% | 18.1% |

향후 수요전망

❖ 여객

11월 여객은 중국 아시안 게임, 단거리 여행수요 증가, 노선 신·증편 등으로 국제여객이 역대 11월중 최대실적을 기록. 국내여객은 제주 여행수요 및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KTX 2단계 개통에 따른 영향으로 울산·포항공항의 실적이 대폭 감소

경제회복 추세에 따른 국제선 운항증가, 원화강세, 중국인 비자발급완화, 여행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으로 연평도포격으로 인한 긴장감 고조 인한 중국 및 일본의 국제여객 증가율이 단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계경제회복 및 환율하락 등으로 항공수요의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큼

❖ 화물

항공화물은 지난 10월 자동차부품, IT부품 수출입 호조 등으로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11월에 북미·유럽의 경기회복속도가 느리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선진국에서의 전자제품 수요가 둔화되어 12월에도 항공화물시장은 다소 정체될 가능성이 있음